

# ‘편백 1번지’ 전남 입지 흔들린다

### 정부 ‘치유의 숲’ 조성 영향 전국 시·군 식재 품

### 편백산업화 주도 수종 개발 등 대책 서둘러야

‘편백 1번지’ 전남의 위상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전국 시군들이 앞다퉈 편백숲을 조성하는가 하면 산불과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편백나무 조림에 나서면서 전남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대수종인 편백의 생육전선이 빠르게 북상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와 대체 수종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편백나무 조림면적은 7만5700ha로 침엽수와 활엽수를 모두 합친 전체 조림지 29만7000ha의 25.5%에 이르고 있다. 조림지 규모로 따지면 2006년 산림청 조사 당시 3만6115ha보다 두 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점유율은 2006년 70.8%에서 66.9%로 7년새 3.9% 감소했다. 편백 붐을 이용해 제주와 전북, 경

남은 물론 울산과 중부권인 충남까지 편백식재를 늘리면서 어린묘목 생산량도 2011년 기준으로 33.4%로, 경남(30.1%), 전북(25.7%)에 바짝 쫓기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산불이나 재선충 피해를 입은 곳에 대규모 편백 숲을 조성하는가 하면 전북 익산의 경우처럼 태풍 피해를 입은 공원에 편백을 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50억 원 규모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도 각 자치단체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편백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 기후변화에 따라 편백과 같은 남방수종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6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개엽·개화시기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남과 전북, 경남에 주로 분포했던 편백의 생육 범위가 2020년에는 충청권과 경북,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편백이 목재로서의 기능까지 뛰어나 전국적인 붐이 일면서 편백 1번지로서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순 식재나 치유의 숲 조성에 그치지 않고 혼효림 조성과 기업화 등을 통해 편백산업화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정원박물관 흑두루미 조형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이 4일 박물관 안 습지생태공원에 세워졌다. 조형물은 풍요와 생태의 의미를 담아 가야시대의 각배(角背)와 순천만의 상징 새인 흑두루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축배’로 명명됐다. <순천시 제공>

## ‘녹차골보성향토시장’ 7일 개장

### 113억 들여 시설현대화...상설 공연장도 운영

보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전남지역 최초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인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사진)이 7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성을 5일시장의 이름을 바꾸고 2011년부터 113억원을 들여 1만6310㎡ 면적에 현대식 건물

과 함께 준비를 꾀할 수 있는 아케이드, 녹돈 전문 식당, 특산물 판매장, 공연장 등을 갖췄다. 현재까지 점포 80곳, 노점 150곳이 입주해 완료했으며 시장 내 녹돈 전문 식당, 특산물 판매장 등의 상가는 연중 상설 운영한다. 개장 행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보성소리마당, 사랑예수단, 보성여중 식전공연과 함께 기념식, 태진자 등 유명 인기가수 축하 공연, 승용차·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 추첨 등으로 진행된다. /보성=김동백기자 kyb@

## 영암에 ‘하정웅길’ 생겼다

### 군서면 구림교에서 신흥 교차로까지 1km 郡, 3천여점 미술품 기증 보담 차원 개설

영암군이 미술품 기증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하정웅로’를 개설했다. 4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서면 구림교에서 신흥 교차로까지 1km를 ‘하정웅로’로 지정하고 5일 명예도로로 선포식을 한다. 이 길은 하정웅 선생의 컬렉션실이 있는 도기박물관과 ‘호미술관’ 앞 도로를 포함한 문화의 길이다. 영암군 홍보대사인 하씨가 기증한 회귀 미술작품은 3037점이다. 2008

년 750점, 2012년 1509점, 2013년 778점 등 세 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군에 기증했다. 군은 미술품 기증에 대한 보담으로 군서면 구림리 6000여㎡ 부지에 55억 원을 들여 미술관과 게스트 하우스를 지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장고,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이 갖춰졌다. 하미술관에는 하씨가 기증한 손아

유, 전화화, 판인식, 광택준, 이우환, 김등미, 재일 작가, 가토아키오 등의 일본작가 작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사갈, 미로, 헨리밀러 등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 등도 있다. 미술관 이름은 하정웅 선생의 성(河)과 영암 구림마을 상대포항의 물이 흘러 흘러 세계 미술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하미술관으로 명명됐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하씨는 선친의 고향이 영암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미술 공부를 접고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재일교포 2세 사업가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 전남개발공사 ‘2년 연속 흑자경영’ 시동

### 업무추진보고회 개최

전남개발공사는 4일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2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을 위한 첫 단추로 ‘2013년 경영목표 달성 업무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매출목표 2869억원 달성을 위한 1·4분기 사업별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2013년 흑자경영을 위한 강도 높은 경영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경영목표인 토지매출 2543억원, 관광사업 등 일 반매출 325억원 달성을 위해 고객 맞춤형 토지공급 및 미분양 토지의 가치증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 등의 사



업수지 개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맞춤형 토지공급의 일환으로 장성 황룡행복마을 한옥전용 단독주택용지에 원금이 보장되는 2년 무이

자 방식의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이전기업의 비용절감 및 입주권의 증대를 위해 ‘기업별 맞춤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청소년들이여 공부에만 전념하라”

### GS칼텍스 노조, 야간 학습 저녁식사비 지원 협약

GS칼텍스 노동조합은 미래의 주역이 될 지역 청소년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수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여수교육지원청과 야간 학습교실 저녁식사비 지원 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은 여수교육지원청 김중구 교육장 등 교육청관계자, 문수중학교 김연식 교장, 충덕중학교 구재운 교장, 진성여자중학교 오충근 교장, GS칼텍스 김국진 노동조합 위원장, 김희선 대외협력부부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조는 올해 방과 후 야간 학습교실에서 공부하는 여수 문수중, 충덕중, 진성여중 학생 150여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저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국진 노조위원장은 “급식비 지

원을 통해 경제적 및 환경적 어려움으로 학습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저녁 끼니 걱정 없이 오후 늦게까지 야간 학습교실에 참여해 배움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에게 지원할 급식비는 매년 GS칼텍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성과급 일부를 모은 기금 2500만원에 회사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마련됐다. GS칼텍스 노동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3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GS칼텍스 노조는 앞서 지난달 18일 여수지역 저소득층 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여수시 교복나눔 캠페인에 여수산단 단 일 기업으로는 최대인 2000만원을 기부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목포~신안 흑산도

### 카페리 화물선 취항

목포~신안 흑산도 간에 전철후 카페리 화물선이 취항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 박우량 신안군수, 주영문 신안수협조합장, 김형진 비금농협장 등이 모여 목포~흑산도 간 화물선 취항 관련 협의를 했다. 이들은 풍랑주의보에도 운항할 수 있는 1000t급 선박을 건조,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흑산도는 신안수협의 활·선어 위판장이 있는 등 수산물 수송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물선이 부재기로 운항, 적기 출하 등에 어려움이 많다. 박우량 군수는 “카페리 화물선이 취항하면 수산물 적기 출하로 어떤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